

오늘의 정확한 기록은 내일의 정확한 역사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왜냐면 그것은 능력이나 요행보다는 시간과 인내가 쌓여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40년 가까이 미술자료를 수집해온 김달진 김달진미술연구소장. 미술자료 수집은 그가 중학교 3학년 때 취미생활로 시작했지만, 세월의 흐름에 따라 그를 미술자료 마니아에서 전문가로, 다시 대가(大家)로 이끌었다. 평생 외길을 걸어온 김달진 소장을 최근 서울 종로구 창성동으로 이전한 김달진미술연구소에서 만났다.

Editor 양준영 Photographer 김성호



1955년 10월, 한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5남1녀 가운데 막내로 태어나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를 여의며 어느덧 내성적인 성격으로 변해갔다. 소년은 수집이 유일한 취미였다.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담뱃갑, 껌종이, 동전 등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별 것 아닌 것들도 그의 손 안에서는 보석처럼 빛났다. 그것들이 조금씩 쌓여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에겐 그렇게 즐거울 수 없었다.

수집품 중에는 명화 도판도 있었다. 주부생활, 여원, 여성동아 등 여성잡지에 컬러 인쇄로 실린 세계의 명화가 점점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림을 모으는 일은 다른 수집과는 또다른 재미가 있었다. 당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유명한 작품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그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읽는 것도 재미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한국근대미술 60년전'을 관람한 것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줄은 그 자신도 몰랐으리라. 1972년 경복궁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하는 '한국근대미술 60년전'을 관람하러 가는 그의 가슴은 벅차 올랐다. 이 중섭, 박수근, 김환기, 이상범 등 자료로만 알았던 근대작가의 명작들을 직접 볼 수 있구나!

그러나 소수의 유명작가에 관해서는 화집이나 팸플릿 등 자료가 비교적 많았지만 유명하지 못한 작가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자료가 빈약했다. 이를 계기로 그때까지 단순히 취미에 불과했던 그의 수집벽은 드디어 목적성을 띄게 된다. 수년간 만사를 제쳐놓고 매달려오던 일에 직업적 소명의식을 부여할 수 있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을 걸기로 결심했다. 타오르던 햇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본격적으로 미술자료수집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우리 미술계에 자료분야는 전인 미답(前人未踏) 상태였다. 미술잡지사, 화랑 미술관, 미술평론가 등에게 일일이 편지를 보냈다. 지금까지 모아왔던 미술자료와 미술에 대한 열정에 대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대부분 답장은 오지 않았다. '취미가 직업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뿌리깊은 나무〉 편집장의 격려문만이 유일하게 그의 손에 쥐어졌을 뿐이었다.

금요일의 사나이

병역의무를 마친 1978년, 월간 〈전시계〉에서 첫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미술계 주요 전시회를 다니며 귀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으나 1980년 언론 통제합 조치로 잡지가 폐간되는 바람에 줄지에 실직자가 되고야 말았다.

1981년 8월 우연히 이정성 홍익대 박물관장이 국립현대미술관장에 임명되었다는 신문 기사를 봤다. 일전에 안면이 있었던 터라 그것만 믿고 무작정 관장을 찾아갔다. 청소부든 뭐든 좋으니 미술관에서 일을 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비록 임시직이었지만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일하게 되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다. 어렵사리 구한 직장이라 열심히 일했다.

매주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커다란 가방 하나를 둘러메고 서울 시내 곳곳의 전시장을 순회했다. 덕수궁을 나서 시간동 인사동 일대를 돌고 동숭동까지 둘러 거의 모든 전시회를 돌아봤다. 1980년대 중반 강남의 신사동 청담동에 화랑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전시회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모든 전시회를 돌아볼 수는 없게 됐지만, 얼마나 열심히 전시회를 돌아다녔는지 언제 모르게 '금요일의 사나이'라는 별명까지 붙어버렸다.

취미와 일 모두 미술자료 수집이다 보니 어느덧 미술자료에 관한 전문성이 쌓여갔다. 동시에 그의 눈에 미술자료의 오류가 발견되기 시작했다. 작가의 약력과 연보, 미술연표, 미술연감 등에 나타난 술한 오류, 오기, 누락의 사례를 보며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몸으로 느꼈다. 1985년 계간 미술잡지 〈선미술〉에 기고한 '관람객은 속고 있다'라는 글은 고발의 신호탄이었다. 미술계 기록문화의 낙후와 기록시스템의 미비 문제점을 거침없이 비판했기에 여러 일간지에 인용·보도되는 등 파장을 낳았다. 하지만 정확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했기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이를 계기로 미술계에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1989년부터 1년에 5건에서 10건씩 썼다. '60여개의 미술공모전, 그 실상과 허상' '공예대전-통계로 본 역사와 현황' '1980년대 한국미술연표' '미술상의 실상을 분석한다' '미술연감은 발행되

“자료에 대한 몰이해와 자료의 부정확함 때문에
미술사서술이 어렵다는 건 미술계 발전의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확한 기록이 내일의 정확한 역사로 남는다’ 는 말을
늘 가슴에 품고 삽니다.”



어야 한다' '동구미술 어디까지 왔나' '미술잡지의 홍수, 실상을 분석한다' 등 미술계가 곱씹어야 할 시사점을 자료조사 통계를 근거로 밝힌 기고문이 이어졌다. 1989년 한 일간지에 인터뷰가 실리며 그의 이름이 일반인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미술자료전문가 김달진'. 그의 이름 석자가 미술자료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1981년부터 86년까지 일용잡급, 1987년부터 89년까지 별정직 7급 상당, 90년부터 공무원 10등급 기능직으로 땀을 흘려 일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그에 비해 직급과 처우 등은 너무 열악했습니다. 1983년 한해 동안 2천여 건이었던 전시회가 1994년 5천4백 건이 넘

을 정도로 각종 미술자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자료 관리를 2명의 직원으로 감당해야 했죠. 아무리 국립미술관이라지만 일한만큼 대우를 못 받으며 40이 훌쩍 넘도록 머무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14년 남짓 이어온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 근무생활을 마감해야 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만들어온 공간과 손때가 가득한 자료들을 가슴 속에 묻고서.

1996년 2월부터 가나미술연구소 자료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가나미술연구소는 우리나라 최고 화랑 중 하나인 가나화랑에서 설립·운영하는 곳으로서 미술잡지 <가나아트>를 발간하고 미술컨설팅도 했다. 자료실장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자료실을 운영하는 것 외에, 미술저작권 사업, <가나아트> 편

집에 참여하고 <화랑·미술관 전시회 가이드>를 만드는 것이었다. 격월간으로 시작한 이 가이드는 당시 서울의 160여개 화랑 및 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회 일정, 전시장의 위치와 주소, 전화번호를 수록해 미술애호가들이 좋은 작품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통로로 자리매김했다.

좋은 일들이 이어졌다. 1997년 제2회 월간미술대상에서 '미술자료 수집 정리'에 기여한 공로로 특별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1999년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의해 '한국인 지식인'으로 선정되는 영광도 따랐다. 2000년 1월 첫 미술전문 포털 사이트인 (주)가나아트닷컴(www.ganaart.com)의 총괄팀장이라는 중책을 맡기도 했다.

2001년 12월 어느 겨울날을 그는 잊을 수 없다. 가나화랑에서 나와 자신의 이름을 내건 미술연구소를 차린 그날을. '김달진미술연구소'의 출범은 국내 미술계의 새 이정표였다.

미술정보센터 설립의 꿈

김달진미술연구소를 세우자마자 부딪친 어려움은 재정난이었다. 가나화랑 근무 시절의 <서울전시회 가이드>를 보완·발전시켜 창간한 <서울아트가이드>가 아니었다면 진작에 문을 닫았을 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서울아트가이드>에는 전시회 정보만이 아니라 큐레이터 및 미술평론가의 칼럼과 기고문, 미술 신간 등이 매달 실린다. <서울아트가이드>의 광고비는 김달진미술연구소의 유일한 재원(財源)이다. 이 광고비로 <서울아트가이드>의 원고료, 발송료, 인쇄비 등 제작비는 물론, 직원들의 급여와 연구소 건물 임대료, 운영비까지 모두 해결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좋아서, 열심히 하다 보니 자료박물관까지

개관하게 되었지만, 가장 큰 과제인 공간 확보는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건물로 이전할 때 잘 모르는 분들은 '김달진이 돈 좀 벌었나 보네'라고 하셨지만, 사실 전세로 임차한 것입니다. 그나마 지금의 공간도 충분치 않아 충북 옥천에 있는 친형의 땅에 4.5톤 가량의 자료를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서 빨리 미술 자료를 서울로 가져와야 하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네요."

미술자료의 중요성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요 몇 년 사이 미술계를 흔들었던 이중섭 작품진위 문제, 박수근 '빨래터' 시비도 근본적으로는 자료의 취약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진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의 축적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보니 해결이 어려웠다. 내용 속에서 전문가들은 "작가의 카탈로그 레조네(Catalogue Raisonné, 작품 전집 도록) 제작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외국의 경우 주요 작가의 전체 작품과 자료를 담은 카탈로그 레조네가 있어 위작 시비에 대응하고 있지만 국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카탈로그 레조네를 만들기 위해서는 풍부한 기초자료가 전제조건이다. 그리고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간이 필수적이다. 김달진미술연구소가 보유한 양만 해도 16톤이 넘고, 지금도 매일 자료가 쌓이고 있다. 엄청난 양의 자료를 단순히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일이다.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기업 모두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전시성 행사 혹은 일회성 기획에만 열중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중요한 내실을 기하기 위해 자료문화 인프라 구축을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현대미술사의 기록과 보존을 위해 절실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공간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해왔지만 관심을 보이는 데는 많아도 정작 지원하겠다고 선뜻 나서지는 않더라고요."

김달진 소장의 '꿈에도 소원'은 인사동 주변에 미술정보센터를 설립하는 것이다. 어느 누구든 공간만 제공해주면 자료와 인력과 예산은 김달진미술연구소가 부담하겠다는 조건이다. 미술자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미술자료박물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미술자료실, 일반인과 소통할 수 있는 아트북카페, 한국미술을 외국인에게 안내하는 홍보관 등이 갖춰진 센터를 오매불망 고대하고 있다.

센터가 설립되면 합리적 자료 보존 시스템을 갖추게 됨으로써 미술가 및 유족에게 미술자료 기증을 유도할 수 있고, 미술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디지털화할 수 있으며,



작품 감정의 필수인 카탈로그 레조네를 제작함은 물론, 미술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어느 미술담당 기자가 제게 너무 편집광적이지 않냐고 하더군요. 저는 전문가라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직업의식이죠. 미술계가 외형적으로는 비대해졌으나 체계적인 자료정리가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현대미술의 역사를 정리하는 기초자료들을 끌어 모아 정리하는 일을 계속해나갈 겁니다. 자료에 대한 몰이해와 자료의 부정확함 때문에 미술사 서술이 어렵다는 건 미술계 발전의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확한 기록이 내일의 정확한 역사로 남는다’는 말을 늘 가슴에 품고 삽니다.”

나는 일복이 많은 사람

작년 김달진미술연구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한국 미술인인명록 발간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작가를 찾아보는 광범위하게 찾아볼 수 있는 인명록이 많지가 않다. 이런 인명사전이 필요하지만 노력과 제작비의 투자에 비해 판매가 적어 지속되기 어렵다.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이 아니었으면 제 아무리 3,000여명의 작가에 대한 정보가 축적돼 있는 김달진미술연구소라고 해도 인명록 발간은 꿈도 못 꿔올 것이다.

“모두 4명의 인력이 투입돼 하고 있는데, 일이 생각보다 너무 많네요. 조사할 내용이 작가의 전공분야, 생몰년, 출생지, 학력 및 경력, 수상, 전시, 저서 및 논문, 대표화집 및 문헌 등으로 많은데다 전시회 명칭만 해도 부르는 이에 따라 제각각이라 일일이 확인을 거쳐야 하므로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까지 7,000여명 선인데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겁니다. 기존의 어떠한 미술 관련 인명사전보다 훨씬 방대한 규모로 제작될 것 같습니다.”

일이 고되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책임연구위원을 맡고 있어 일을 느슨히 할 수 없다는 김달진 소장. 평생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왔을 그의 인생의 단면을 엿본 듯했다.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 미술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미술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주창한 지도 어느덧 늘어난 흰머리만큼의 세월이 흘렀다.



제작년 미술자료박물관을 개관하고 몇 달 동안 수많은 언론매체에 소개되며 유명세를 탔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후원회까지 조직됐지만, 대부분 미술계 인사들이었고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기업인들은 극소수였다. 결국 현실은 별로 변한 게 없다. 남의 건물을 빌려 쓰는 처지에 행여 낡은 건물이 무너질 세라 자료를 더 들여오는 것도 전전긍궁해야 한다. 일평생 미술자료만 뒤적이던 김달진 소장이지만 오늘도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이슈운 소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해 열린 제1회 아트북 페스티벌만 해도 지난 전시회를 도록과 리플렛, 서적 등 미술 관련 출판물을 통해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미술서적 나눔 축제라는 뜻깊은 기획이었지만 적자에 시달려야 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 속처럼 갑갑하고 어두운 현실에도 희망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 김 소장은 미술자료 수집에 바친 40년 세월 동안 팜플렛, 도록이 담긴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다니느라 처진 자신의 오른쪽 어깨를 쳐다보며 말했다.

“처음에는 취미였던 미술자료 수집이 천직이 되고 여러 언론매체에 제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 등 과분한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이제 미술자료전문가로 오늘의 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정리해서 남겨야겠다는 사명감과 기록자의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걸요. 저는 참 일복이 많은 사람인가 봅니다.(웃음)”